



LG전자 식기세척기, 설거지의 개념 바꿨다

세탁기와 같은 필수가전은 가사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최근에는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전기레인지 처럼 새롭게 필수가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형 가전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전들은 기존에 비슷한 제품이 있었지만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다 특별한 계기로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끈 경우가 많다. 새 기술로 기존 제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견을 깨뜨릴 만큼 탁월한 편리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식기세척기가 주목받고 있다.

손 설거지보다 뛰어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LG전자는 지난 3월 업계 표준이 된 12인용 기준으로 7년 만에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최근 부산대학교 감각과학연구실 이지현 교수팀과 '식기세척기와 손 설거지 비교 행동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달리 LG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세척력과 효율성이 손 설거지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을 가정했다. 음식물로 오염된 식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이 손 설거지보다 약 26%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기세척기가 사용한 물은 손 설거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식기세척기가 손 설거지를 대체하며 주요 주방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와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100도(℃) 트루스팀의 실험 결과, 디오스 식기세척기가 장관출혈대장균(O157:H7),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식중독 유해균을 9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장균과 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균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 병원성 유해균이다.



54개의 고압 물살로 구석구석 세척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제품의 천장, 중간, 바닥에서 나오는 총 54개의 고압 물살이 식기를 구석구석 세척한다. 특히 식기세척기 바닥에 있는 X자 모양의 토네이도 세척 날개가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고압 물살이 식기에 남아있는 세제와 기름때까지 제거한다. 고압 물살은 세척 시간도 단축한다. 이 제품은 표준 코스 기준으로 기존 모델 대비 약 40% 더 빠른 55분 만에 식기 세척을 끝낸다.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100도(℃) 트루 스팀 기능도 탁월하다. 식기세척기의 천장, 정면, 바닥 등 3면에서 고온의 스팀을 빈틈없이 분사해 식기에 늘어붙은 음식물과 유해 세균을 깔끔하게 제거한다. 국내 전문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살균 마크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 제품에 적용된 LG전자 생활가전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DD모터는 10년 무상보증의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 이 부품은 에너지 효율이 일반 모터 대비 30% 더 높다. 또 이 제품은 3단 높이 조절, 다용도 선반, 맞춤형 식기꽃이로 편리한 스마트 선반 시스템과 사용자 안전까지 고려한 자동 문 열림 건조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여 프리미엄 식기세척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⑦

